

자동차부품·가전제품 수혜...공산품·농수산물 고급화가 살 길

한·중 FTA 가서명...광주·전남 파급효과와 대응전략

광주, 자동차·반도체·금형산업 수출 등 별 영향 없을 듯
전남, 고급 소비재 생산 기술력 갖춘 중견기업 육성 시급
쌀·소·돼지·사과·배 등 제외...참깨·김치는 피해 불가피

25일 한·중 양국의 FTA 가서명에 따라 올 상반기 내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 등을 앞두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FTA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등 대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대규모 시장인 중국 시장이 개방되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농수산물 관련 피해 최소화, 질 높은 농수산물 생산 및 수출 다각화 전략 마련, 관광객 유입을 위한 관광산업 진흥 등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 자동차부품, 고급가전제품 수출 증가=광주의 대중국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2013년 기준 4억5800만달러)는 그동안 WTO회원국 간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돼 온 만큼 이번 한·중 FTA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동차도 양허품목에서 제외되면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형산업도 수출지역이 대부분 유럽과 미주지역이어서 영향권에서 벗어났으며, 농업 분야도 광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에 불과해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산업은 오히려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는 등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동차부품은 대부분이 국내에서 생산돼 관세 인하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출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광주에서 생산되는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등 기술 우위에 있는 고급형 가전제품도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엑스선방사선 기기 등 전자기기와 원동기 및 펌프류 품목 등도 월등한 기술력을 앞세워 중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주시가 민선 6기들어 집중 육성하기로 한 김치산업은 중국산 김치의 수입 증가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남 중소기업...최종 고급소비재 생산 지원=2013년 전남도의 공산품 중국 수출액은 118억 달러로, 전국의 8.1%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남 수출액(414억 달러)의 28.8%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의 중요한 시장이다. 중국인 소득 수준 향상으로 인한 고급 소비재 선호로 소비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중국의 공산품 수입액은 1조 9264억 달러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14.7%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연말뉴스

그러나 현재 국내 제조업의 수준에서는 최종 고급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없어 수출 신장에 한계가 있으며,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기술력이 낮아 수출 확대 영향이 미미한 실정이라는 것이 전남도의 '냉정한'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 기술력과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독자적 성장기반을 갖출 수 있는 수출 중견기업 육성, 해외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신시장 진출을 타깃으로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 전개, 공산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 단계별 지원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급 농수산물 중국시장 공략=2013년 전남도의 농수산물 중국 수출액은 3200만 달러로 전국 5억8500만 달러의 5.5%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농수산물 수출규모는 중국 전체 농수산물 수입액의 0.7%에 불과해 이번 FTA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국 농수산물 소비시장 규모는 2013년 1조513억달러로, 지난 2005년 이후 연평균 12.7%씩 성장하고 있는 거대시장이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고품질 농수산물 소비량이 급증하고 관세 인하 효과로 농수산 가공품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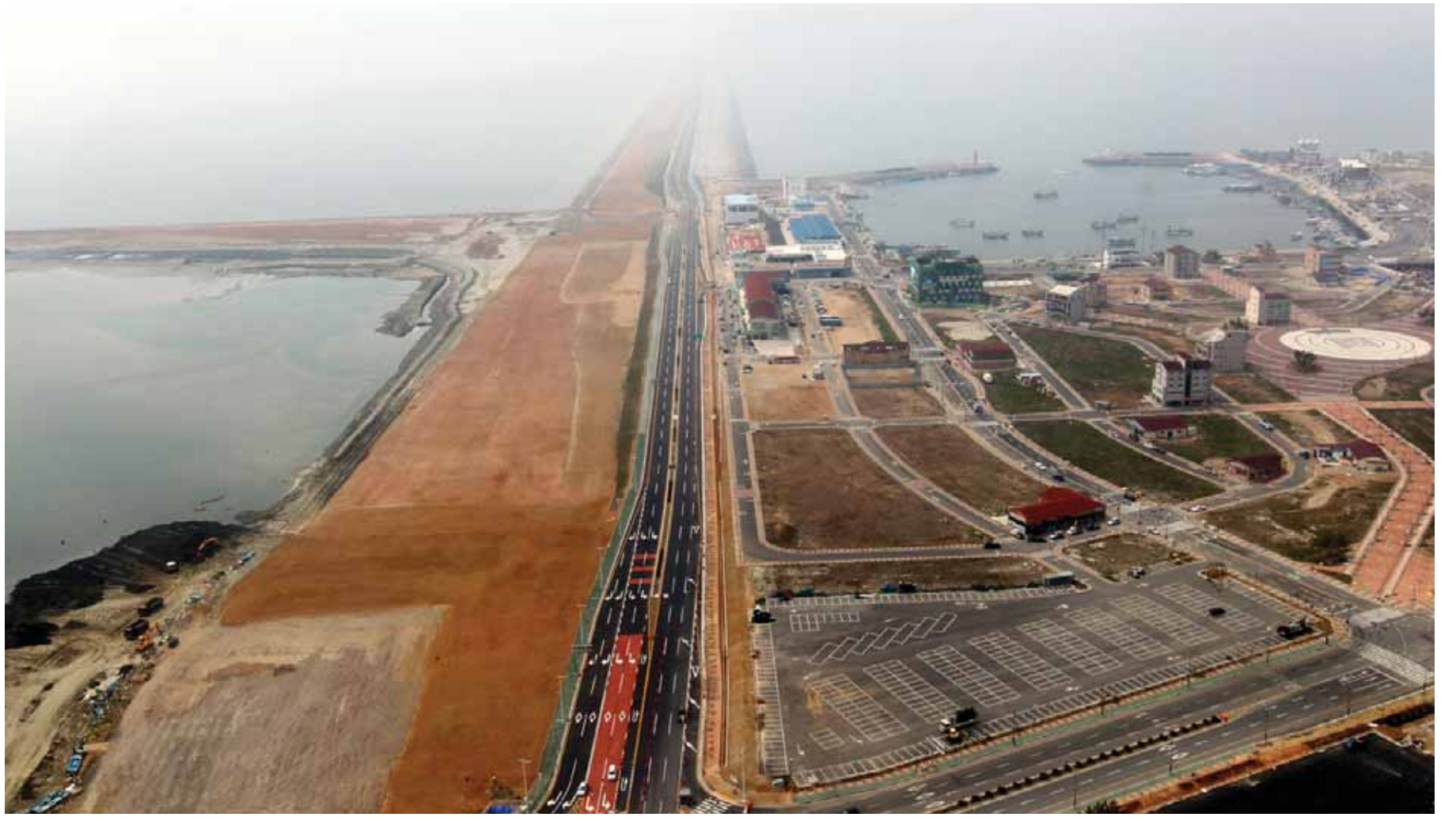
의 주요 농산물 수출품목인 유자차, 오리탈, 삼계탕과 주요 수산물 수출품목인 김, 미역, 전복, 해삼, 톳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량·다품목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미비한데다 영세한 수출업체가 대다수라는 점이 약점이다. 동종 업체간 과다 경쟁에, 농수산식품의 고비용·폐쇄적 유통구조도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전남도는 친환경 농산물 집중 마케팅을 통해 중국 고소득층과 신소비층을 공략하고 수출전문기업을 육성해 농수산 수출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도 10년차 피해액 크게 감소=이번 한·중 FTA는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 비중이 63.5%로 미국(12.2%), EU(14.5%), 캐나다(18.5%) 등에 비해 매우 보수적인 합의로 알려졌다.

쌀 및 쌀 관련 제품, 소·돼지 등 주요 축산물, 사과·배·포도 등 국내 주요 생산 과일 및 고추·마늘 등 채소, 간장 등 가공식품 등도 양허제의 대상이다.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된 참깨, 들깨, 김치는 일정부분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예상한 10년차 피해액은 당초 4481억원에서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5일 정부가 내놓은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새만금을 중국 및 제3국 투자유치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내에 '한중 FTA 산업단지'를 조성해 유망 중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하늘에서 바라본 새만금 전경. /연합뉴스

제주의 풍량과 바람속서 잦은 삶의 평은



(104) 바람

모처럼 길었던 명절 연휴는 여러모로 유용한 시간이었다. 명절을 쇠고 짧은 여행과 한 편의 영화, 그리고 남은 시간이 있어 아무 생각 없이 뒹굴거리며 그토록 원했던 게으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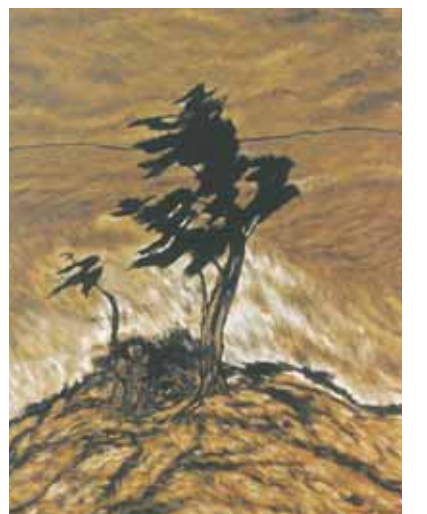
여행지였던 제주도에서 만난 것은 바람이었다. 따뜻한 남쪽답게 2월의 훈풍은 나른함을 더해주고, 풍문으로 듣고 들었던 재일 한국인 건축가 이타미 준(1937~2011)의 '바람 뮤지엄'은 색다른 긴장감을 선사해주었다.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어떻게 전시킬 수 있을까? '바람 뮤지엄'에는 목조 건물의 가느다란 세로 틈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바람을 만나 특별한 그림을 그

리면서 소리와 흔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바람을 만나고 나니 제주 곳곳에 전시되어 있는 '바람의 화가' 변시지 화백(1926~2013)의 작품들이 예상치 않게 다가온다. 서귀포 출신의 변시지 화백의 작품 '폭풍의 바다 2'(1993년 작)는 화백이 즐기게 되어주고자 했던 제주의 대지와 바람의 뒤섞임을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폭풍이 치는 바다, 초가집, 까마귀, 기울어진 소나무, 조랑말, 어깨를 움츠린 사내 등을 그리면서 제주의 흔과 숨결을 황토색으로 승화시켰던 화백은 제주의 거친 바람 속에서 오히려 평온을 찾곤 했다고 한다.

작가론 '변시지-폭풍의 화가'의 저자 서종택교수(고려대)는 "작가는 제주의 선과 빛과 형태에서 그의 삶의 근원적인 고독이나 설화의 출처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의 화폭에 이는 풍량과 바람에서 우리는 삶의 외경과 현 존



변시지 작 '폭풍의 바다2'

재의 시련을 함께 볼 수 있었다"고 들려준다.

하룻밤 사이에 두고 가늘었던 봄비가 장맛비처럼 내리며 바람결이 거세졌다. 밤새 창 밖에는 커 큰 야자수가 휘청거리고 검푸른 바다는 격랑을 일으켰다. 화폭을 뒤덮듯 휘몰아치는 바람의 소용돌이가 눈앞에서 펼쳐지니 온몸을 흔들던 제주의 바람이 실감났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